

 교육부		정부혁신 보다 나은 교육부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0. 1. 9.(목) 배포</p>		
보도일	2020. 1. 10.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. 9.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			
담당과	국제교육협력담당관	담당자	과 장	최수진 (☎ 044-203-6784)	사무관	박민지 (☎ 044-203-6172)

제3회 한·일·중 교육장관회의, 중국에서 개최

- ◆ 학령기교육을 넘어 평생교육, 저출산·고령화 분야로 협력범위 확대
- ◆ 3국 청소년 등 인적 교류 및 고등교육 협력 강화 지속 추진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10일(금),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「제3회 한·일·중 교육장관회의」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.
 -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개최되는 3국 교육장관회의에서 한·일·중 3국 간 교육협력에 기반한 공동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, 3국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유은혜 부총리는 본 회의에 앞서, 중국 천바오성(陳寶生) 교육부장과의 한-중 양자회담,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(萩生田光一) 문부과학대신과의 한-일 양자회담에 차례로 참석하여 양국 간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.
- 한·일·중 교육장관회의는 3국의 인적교류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우리 교육부 주도로 만들어진 3국 교육분야 장관급 협의체로,
 - 2016년 한국과 2018년 일본에 이어, 올해 중국에서 3번째 회의가 개최되어 한국-일본-중국 순서의 순환개최 전통을 만들었다.
 - 그 간 두 차례 장관회의를 통해 인적 교류 확대, 고등교육 협력 등 3국의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.

- 특히,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24일, 중국에서 개최된 제8차 한·일·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향후 10년간의 협력 비전을 채택하였고,
 - 이어 3국 교육장관이 한 자리에서 미래지향적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-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△3국간 청소년 교류와 상호이해 촉진, △캠퍼스 아시아 사업* 등 고등교육 협력 촉진, △교육협력 분야 확장 및 교육 발전을 통한 공동체 기여 등으로,
 - 3국 장관이 역대 교육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협력 사업들의 성과를 확인하고,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 - * 3국 교육부 공동 사업으로, 한·일·중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 간 공동·복수 학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(총 17개 컨소시엄(사업단), 총 40개 대학 참여 중)
 - 또한,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, 3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육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.
- 한편,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경 한국학교를 방문하여 재외국민 교육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.
 -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“국민 스스로가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하고 삶의 질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3국이 함께 교육과 사회제도를 개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.”라고 밝혔다.

[참고] 제3회 한일·중 교육장관회의 주요 일정

참 고**제3회 한·일·중 교육장관회의 주요 일정**

일자	시간	세 부 내 용
1.10 (금)	10:30 ~ 13:30 ('90)	북경 한국국제 학교 방문
	14:50 ~ 15:20 ('30)	한-중 양자회담
	15:40 ~ 16:10 ('30)	한-일 양자회담
	16:30 ~ 17:40 ('70)	한·일·중 3국 교육장관회의
	16:30 ~ 16:45('15)	개회식
	16:45 ~ 17:15('30)	의제 발언
	17:15 ~ 17:30('15)	공동성명서 의견교환 및 채택
	17:30 ~ 17:40('10)	공동성명서 서명식 및 사진촬영
	18:00 ~ 19:30 ('90)	중국 교육부 주재 환영 만찬